게임 속 '설 선물' 펑펑 쏟아진다

주요 게임사들이 한복과 윷놀이 관련 콘텐츠를 추가하는 등 민족의 명절 설 준비에 나섰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 모바일게임 브랜드 팜플이 '큐라레: 마법도서관'에 최근 업데이트한 한복 의상. 사진제공 | 스마일게이트

게임업계 설날 이벤트 풍성

PC온라인게임, 복주머니·한복 등 지급
모바일게임들도 설 맞아 다양한 이벤트
블리자드는 '스타2·디아3' 반값에 판매

게임 세상에도 풍성한 설 선물이 쏟아진다. 주요 게임사들은 민족의 명절 설을 맞아 다양한 이벤트를 마련했다. 게이머들은 한복과 윷놀이 등 관련 콘텐츠 추가로 명절 분위기를 한껏 낼 수 있다. 또 특정 미션을 수행하면 평소 얻기 어려웠던 아이템을 획득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도 있다.

●게임서 한복 입고 윷놀이 즐긴다

먼저 PC온라인게임들이 다양한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

엔씨소프트는 25일까지 '아이온'에서 설맞이 이벤트를 연다. 이용자는 게임 내 이벤트 펫 육성을 통해 다양한 아이템을 받을 수 있다. 펫은 대도시에 위치한 논플레이어 캐릭터(NPC) 만드룽을 통해 살 수 있다.

넥슨은 26일까지 '클로저스'에서 각 지역 보스 몬스터를 사냥하면 '복스러워 보이는 파편'을 얻을 수 있다. 이를 NPC에 가져가면 한복 코스튬이 들어 있는 '복주머니'를 준다.

네오위즈게임즈는 '블랙스쿼드'에 3월1일까지 만나볼 수 있는 설 맞이 스페셜 패키지 아이템을 내놨고, '온그린'에도 남녀 캐릭터 한복 의상을 4종 선보였다. 이 밖에 '스페셜포스'와 '슬러거'에선 윷놀이와 관련한 이벤트를 즐길 수 있다.

넷마블게임즈는 22일까지 '엘로아'에서 신규 이용자가 10레벨을 달성하면 아이템 복주머니를 제공한다. NHN블랙픽도 22일까지 '풋볼데이'에서 주어진 과제를 달성하면 4가지 색상의 양을 주고 이를 월드스타팩 등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이카루스'에 25일까지 접속하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새해 선물 꾸러미'를 지급한다.

웹젠은 26일까지 '뮤 온라인'에서 '복순이와 복주머니' 이벤트를 열고, 내달 19일까지는 '뮤 온라인'의 로크 서버를 위한 '설맞이 출석체크 이벤트'도 진행한다.

라이엇 게임즈는 '리그 오브 레전드'에 축제와 관련한 3종의 신규 스킨을 공개했다.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는 24일 오전까지 '스타크래프트2'와 '디아블로3' PC 버전을 50% 할인 판매하고, 현재 비공개 테스트 중인 '히어로즈 오브 더 스톰'에선 달의 축제 관련 이벤트를 벌인다. 이 밖에도 엘엔케이로직코리아는 25일까지 '붉은보석'에서 몬스터를 사냥하면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복주머니'를 주고, 와이디온라인도 '프리스톤테일'에서 일반 몬스터를 사냥하면 복주머니 아이템을 주는 이벤트를 26일까지 펼친다. 조이시티는 22일까지 '프리스타일풋볼Z'에 접속하는 모든 유저에게 '잠자는 아기청양' 등의 아이템을 제공한다.

●손안의 선물도 푸짐

내 손안의 모바일게임에서도 푸짐한 선물이 쏟아진다.

컴투스는 22일까지 '서머너즈워: 천공의 아레나'에서 미션 완수 유저에게 아이템을 제공하고, 낚시게임 '낚시의 신'에선 27일까지 만두를 모아 유용한 게임 아이템으로 교환 가능한 이벤트를 벌인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23일까지 '윈드소울'에서 다양한 보상으로 교환할 수 있는 '세뱃돌'을 모을 수 있다.

파티게임즈는 26일까지 '아이러브파스타'에 설날 윷놀이 이벤트를 실시한다. 또 신규 메뉴로 떡국을 한정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스마일게이트 메가포트의 모바일게임 브랜드 팜플은 '큐라레: 마법도서관'에서 26일까지 접속한 유저 전원에게 6등급 확정서 1종과 5등급 확정서 2종을 비롯해 각종 재료들을 묶은 파격 패키지를 지급한다. 이 밖에 인크로스와 이편컴퍼니 등도 서비스 중인 모바일게임을 통해 설맞이 특별 이벤트를 펼친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네오위즈게임즈 '온그린'

웹젠 '뮤 온라인'

가족·친지와의 여행, '멀티 제품'으로 짐 최소화

센터폴 '247 라보' 어디서든 편한 트레킹화
엠리밋 '3IN1 브릿지재킷' 내피 탈부착 가능

올해 설 연휴는 꽤 길다. 최단 5일. 운이 좋아 16일과 17일을 징검다리 연휴로 활용할 수 있다면 최장 9일로 늘어난다.

황금 설 연휴를 맞아 가족, 친지들과 함께 여행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 인원이 여행을 가려면 짐을 꾸리는 일이 만만치 않다. 최대한 가볍게, 그러면서도 여행지에서 불편함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로 활용할 수 있는, '멀티플레이'에 강한 제품들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트레킹 전문 아웃도어 브랜드 센터폴은 상반기 주력제품으로 초경량 고기능성 멀티트레킹화 '247 라보(사진)'를 내놨다. 평탄한 길을 걷기에도 좋지만 울퉁불퉁한 국내 지형에 최적화해 어디서나 안전하고 편하게 신을 수 있다. 미드컷(19만9000원), 로우컷(18만9000원) 제품이 나와 있다.

핀란드 라이프스타일 아웃도어 브랜드 피버그린은 방수기능과 활동성을 지닌 '퍼펙트 방수재킷(36만원)'을 선보였다. 바람이 불고, 언제 뭐가 내릴지 모르는 요즘처럼 변덕스러운 날씨에 딱이다. 여행용 아웃도어룩은 물론 일상생활에서도 캐주얼룩으로 입을 수 있는 멀티형 제품이다.

엠리밋의 '3IN1 브릿지재킷(30만원)'은 전형적인 하이브리드 멀티제품이다. 바람막이 외피와 탈부착이 가능한 폴라플리스 내피로 구성됐다. 날씨에 따라 재킷을 덧입거나 내피를 벗어 휴대할 수 있어 활용성이 높다.

컬럼비아의 '브레이크 더아이스 재킷'도 외피와 내피가 따로 있는 '2IN1' 제품이다. 방습, 투습이 우수한 외피와 보온성이 좋은 경량의 내피로 구성됐다. 컬럼비아가 자랑하는 보온기술인 '옴니히트'가 적용된 것도 강점. 신체에서 발생하는 열기를 반사해 따뜻함을 유지해 준다. 디자인이 뛰어나 내피 하나만 걸쳐도 멋진 옷이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봄을 알리는 '티 익스프레스' 재가동 입춘이 지나면서 봄이 성큼 다가옴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용인 테마파크 에버랜드에는 다가오는 봄을 알리는 변화가 있다. 대표놀이기구인 티 익스프레스(T-Express)의 운행 시작이다. 겨울 내내 멈춰있던 티 익스프레스의 열차가 6일부터 운행을 재개했다. 최고 높이가 아파트 20층에 해당하는 56m인 티 익스프레스는 최고시속 105km이고, 나무로 만든 국내 첫 롤러코스터다. 고정팬이 많은 어트랙션답게 페이스북, 유튜브 등 SNS에서는 티 익스프레스 가동 영상이 50만여회의 조회를 기록하기도 했다. 사진제공 | 에버랜드

설 선물 구입 '모바일 플랫폼'이 대세

11번가, 설 메인 프로모션 기간 43% 차지
쿠팡 등 소셜커머스도 모바일 판매 비중↑

설 선물 준비도 이젠 모바일이 대세다.

국내 주요 온라인쇼핑몰이 최근 설과 관련한 기획전을 진행한 결과 모바일로 상품을 구입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모바일쇼핑 최강자 11번가는 2일부터 10일까지 설 메인 프로모션을 진행한 결과, 모바일거래 비중이 43%를 차지했다. 특히 불황 탓에 초저가형 생활용품 세트와 1~2만원대 실속형 가공식품 선물세트가 큰 인기를 끈 것으로 나타났다. 설 연휴 전 2주 동안의 모바일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식품의 경우 과일선물세트가 60%, 고기·축산물 선물세트가 167%, 통조림·캔 선물세트가 115% 늘었다. 샴푸와 세제 등 생활용품도 80% 증가했다. 11번가 심석 모바일 사업 그룹장은 "바쁜 일상 때문에 모바일로 선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모바일 기기에 특화된 소셜커머스도 모바일 판매 비중이 늘었다. 쿠팡은 지난달 30일부터 4일까지 설 선물세트 기획전을 벌인 결과 모바일 구매액이 전체 구매액 중 73%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모바일 비중은 56%. 특히 60대 이상 장년층의 모바일 구매액 증가율이 눈에 띈다. 60대 이상 모바일 구매액은 지난해와 비교해 172% 증가했다. 모바일 비중도 지난해와 비교해 17%p 오른 53%를 기록했다. 그 외 30대가 102%, 40대와 50대도 8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해엔 식품 및 생활용품이 인기였던 것에 반해 올해는 합리적 가격대의 화장품 세트가 인기를 끌었다. 김명근 기자

올해 설 차례상 평균비용 '21만7374원'

쇠고기 등 12개 품목 전통시장이 가장 저렴

올해 설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드는 평균 비용이 21만7374원으로 조사됐다. 전통시장에서 장을 보면 백화점, 대형마트보다 비용이 20% 이상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설을 앞두고 서울 시내 전통시장과 백화점, 대형마트 등 유통업체 90곳의 설 제수용품 24개 품목에 대한 특별물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올해 설 차례상 소요비용은 4인 기준 평균 21만7374원으로 조사됐으며, 예년과 같이 '백화점>SSM(기업형슈퍼마켓)>대형마트>일반슈퍼마켓>전통시장' 순으로 비용이 많이 들었다. 전통시장에서 제수용품 24개 품목을 구입할 경우 17만2649원, 일반 슈퍼마켓은 18만4143원의 평균 비용이 들었다. 반면 대형마트와 SSM에서 동일 품목을 구입한다면 전통시장보다 4만원이상, 백화점에서는 약 15만원이 더 드는 것으로 조사됐다.

●24개 제수용품 중 12개 품목 전통시장 가장 싸

품목별로 가격을 비교한 결과, 24개 제수용품 중 12개 품목이 전통시장에서 가장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슈퍼마켓, SSM, 대형마트에서는 각각 4개 품목이 가장 저렴했다. 쇠고기(양지·일반육), 돼지고기(뒷다리), 계란, 명태살, 고사리, 도라지, 숙주, 대추, 배, 단감, 유과는 전통시장에서 가장 저렴하고, 돼지고기(목삼겹), 식용유, 떡국떡, 약과는 일반 슈퍼마켓, 참조기, 시금치, 밤, 사과는 SSM, 황태포, 밀가루, 두부, 청주는 대형마트에서 가장 쌌다.

특히 쇠고기(양지 600g)는 전통시장(2만982원)이 대형마트(3만7543원)보다 1만6561원(44.1%)이나 저렴했으며 고사리, 도라지, 배, 약과, 유과 역시 대형마트보다 전통시장 가격이 30.3~43.0% 쌌다.

품목 분류별로 살펴보면 축산물 5개 품목의 총계는 전통시장 6만667원, 대형마트 8만8111원으로 전통시장이 2만6444원(30.0%) 저렴하고, 채소·임산물(6개 품목)과 과일(3개 품목) 역시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각각 1만63원(25.0%), 4540원(16.5%) 저렴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산물(3개 품목)과 가공식품(4개 품목)의 합계는 대형마트가 각각 2208원(11.3%), 1095원(4.1%) 더 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경기 불황 속에서 올해 설 제수 용품이 많이 오른 것으로 조사돼 소비자들에게 부담이 될 것 같다. 전통시장, 슈퍼마켓, 대형마트 등 품목별로 저렴한 곳이 다르기 때문에 가격을 꼼꼼히 비교할 것"을 소비자에게 권유했다.

김재학 기자 ajapto@donga.com 트위터@ajapto

한·일 관광계, 평창·도쿄올림픽 공동 마케팅

한국과 일본의 관광계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과 2020년 도쿄하계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공동마케팅에 나선다.

한국관광공사와 일본전국여행업협회(ANTA)는 14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일관광교류 확대회의'에서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아 함께 추진할 사업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 선언문에는 상호 관광교류 확대 촉진, 지방교류 활성화 사업 적극 추진, 2018평창동계올림픽·패럴림픽 및 2020도쿄하계올림픽·패럴림픽 성공을 위한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번 행사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일본관광청, 일본여행업협회(JATA), 한국여행업협회(KATA), 일본정부관광국(JNTO) 등 양국 관광업계, 정·재계 인사 등 600명이 참가했다. 회의에 앞서 오후 2시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 307, 308호에서는 한일 양국 지자체 80곳이 참가해 상호 관광상품화를 모색하는 '한일우호교류투어 여행상담회'가 열렸고, 오후 6시부터는 '한일우호 관광교류의 밤' 행사가 진행됐다.

변추석 한국관광공사 사장(오른쪽)과 일본 여행업협회 니카이 도시로 회장이 한일 관광업계 공동선언문 조인식을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 한국관광공사

김재범 전문기자 oldfield@donga.com 트위터 @kobaukid

편집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f